

가금티푸스와 저혈당증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금티푸스병 및 저혈당증 - 급성폐사증후군(저혈당증)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발생주의보를 발령,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농가에 시달하였다.

1. 가금티푸스병

가금티푸스는 어린 일령의 병아리에서부터 산란 중인 성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령의 닭에서 황색 또는 푸른색의 설사와 함께 높은 폐사율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1992년도 8월에 경기도 일부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집단적인 폐사를 일으키며 시작된 가금티푸스는 1997, 1998년도에도 전국적으로 발병하여 심한 산란저하와 폐사를 유발하여 양계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가금티푸스는 특히 여름철에 발병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금년도에는 이미 경기도 양주, 동두천, 연천, 경북 칠곡, 충남 보령, 충북 괴산 및 전북 김제에서 29만수가 발생하여 3천6백수가 폐사하는 등 전국적으로 발병이 되고 있으며 계절적으로 더욱더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주요증상

○ 어미로부터 난계대감염시 약한 병아리 및 죽은 병아리들이 부화장에서 발견되며 감염된 병아리들

은 매우 침울하고 황색 또는 푸른색의 설사변에 의해 항문이 지저분하다.

○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성계의 경우 케이지 전체에서 산발적으로 폐사가 나타나며 폐사가 나타난 케이지 각방의 닭은 모두 죽는 경향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료섭취량이 줄어들고 산란율이 떨어진다.

○ 간과 비장이 매우 커지고 회백색의 작은 괴사반점이 관찰되며, 심장의 회백색 결절과 난포내 출혈, 난황파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 주요증상 및 검사결과가 추백리 등 다른 질병과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각 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토록 해야 한다.

2) 예방대책

○ 등록된 종계장에서 위생적으로 사육된 종계에서 생산된 병아리나 중추를 구입하여 입식하며, 출처가 불분명할 때에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닭차나 사료차의 농장방문시 철저한 차량소독을 실시하여 계분이나 깃털을 제거하고, 개나 고양이, 야생조류 등의 접근을 막고 쥐 등을 구제하여야

한다.

○ 양계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큰 닭과 병아리는 분리하여 사육하거나 가능하면 한 농장에서는 같은 일령의 닭만 사육해야 한다.

○ 종계장에서는 추백리 진단액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검색하며, 양성계가 발견시 즉시 도태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감염계는 분변을 통해 가금티푸스균을 배출하므로 사료통이나 물통에 계분이 묻지 않도록 관리하고, 병든 닭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건강한 닭을 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 가금티푸스는 갈색란 산란계에 특히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저항성이 강한 백색란 산란계로 전환하여 사육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백신접종요령〉

- 종계는 가금티푸스 예방약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

- 산란계에서의 가금티푸스 예방약 접종은 1차는 6~12주령, 2차는 2~3주 간격을 두고 실시하며, 1차 접종시는 겔 예방약을, 2차 접종시는 오일 예방약을 사용하면 면역지속기간이 오래 유지된다.

- 오일 예방약의 경우 일시적인 사료섭취량 감소, 산란 저하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방약 효과는 겔백신인 경우 3개월, 오일 예방약인 경우 6개월 이상 경과되면 방어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보강접종 하여야 한다.

3) 치료

○ 치료약제로는 앰피실린, 젠타마이신, 가나마이신, 노플로삭신 및 설파트리메토프림 등이 있으나 약제감수성 시험결과에 따라 유효한 약제를 선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문가와 상의하여 투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 약은 주사나 음수 및 사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관련기사 본문 122페이지 참조)

2. 저혈당증-급성폐사증후군(저혈당증)

저혈당증-급성폐사증후군(일명 저혈당증)은 육계 2주령 전후에서 발생되어 신경증상 및 다리이상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면서 급사하는 질병이다.

본 질병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레나바이러스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레나바이러스 이외의 복합적 원인으로서는 사료 내 마이코톡신, 사양관리 불량, 약한 병아리 및 영양 결핍 등이 있다. 최근 국내의 육계에서 저혈당증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예가 1999년 2월 중순부터 급격히 증가를 하였다.

1999년 1월부터 3월말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뢰된 231건의 가검물중 78건이 육계이며 이중 20건이 저혈당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다. 이러한 저혈당증의 발생은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등에서 부분적으로 보고가 있으나 전국적인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니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1) 주요증상

○ 육계 2주령 근처에 발병하며 배를 땅에다 붙이고 다리를 뒤로 쭉 뻗는다.

○ 폐사는 전형적인 저혈당증의 경우 발생후 3~5일동안 지속되다가 멈추게 되지만 요즈음에 육계 농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2차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예도 있다.

○ 질병이 지속이 되면 영양성 장애가 나타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구루병, 경골연골 발육 부전증 등이 합병증으로 발병되기도 한다.

2) 예방대책

○ 저혈당증에 대한 여러 가지 예방대책이 지금까지 제시되었지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발생되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대책은 없다.

일 령	소등시간 ※
0~3	0
4~7	6
8~14	10
15~21	8
22~28	6
29 이후	2

※ 일조시간이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수정을 해도 괜찮다. 요즘의 경우는 최소소등시간을 6시간으로 하여 2시간 소등, 1시간 점등을 하는 간헐점등법을 이용하면 좋다.

○ 현재까지 농장에 적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있었던 방법은 점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 저혈당증 예방을 위한 점등프로그램

○ 또한 점등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복합비타민(비타민 C, D는 반드시 포함)을 투여해 주어야 한다.

○ 저혈당증은 전염성 질병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하며, 쥐, 닭에 의해 전파될 수도 있으므로 구서, 구충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과 함께 위생적인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 계사에 닭이 비어있는 시기에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특히 계사내 온도를 올려주어 잔존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살균하는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예방법이다.(문의 : 조류질병과 (0343)467-1802)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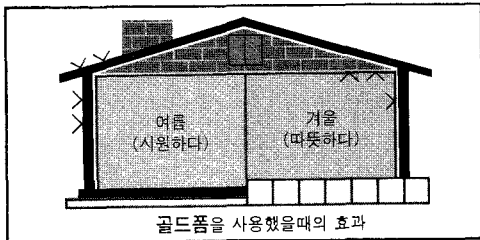
21세기 첨단단열재

골드폼

독일형 상압식 압출보드 단열재

단열재 선택

- 변 함 없 는 단열재
- 자 기 소 화 성 단열재
- 세 계 가 인 정 한 단열재
- 축 사 에 적 합 한 단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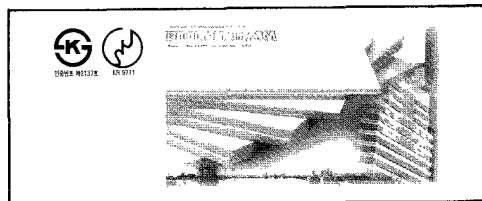


쾌적한 축사를 원하십니까?

골드폼이 해결해 드립니다.

※축산농가에서 인기높은 이유!

1. 우수한 단열로 겨울철 사료비 절감.
2. 우수한 단열로 냉난방의 에너지 절감.
3. 축산농가의 생산성 증가



자매품 : 스티로폼, 갈바륨, 샌드위치 판넬

휴대폰 : 017-360-8899(直)
호출기 : 015-8387-4980
팩 스 : (0331)238-0423



기획영업팀
서울이피에스산업
전 화 : (0331)225-4980